

“겨울 정취 가득한 음악여행 떠나요”

전주시민오케스트라, 12월 1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서 제3회 정기연주회 개최

전주시민오케스트라(지휘자 김대현)는 오는 12월 1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겨울 정취 가득한 음악여행'을 주제로 제3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전주시민과 전주시 공무원이 함께 문화예술로 융합하고 다양한 음악으로 소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창단된 전주시민오케스트라(JCO)는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음악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음악단체로, 막스 루돌프(Max Rudolf)의 'The Grammar of Conducting'을 마스터한 음악감독 김대현 지휘자의 지도 아래 현재 53명의 단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제3회 정기연주회는 (재)전북



전주시민오케스트라는 오는 12월 1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겨울 정취 가득한 음악여행'을 주제로 제3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의 '2024년 지역문화 예술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돼 진행되는 것으로, 추억 가득한 '클래식&시네마 O.S.T Best 컬렉션'으로 겨울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11곡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주회에서는 한국현악협회 부회장이자 영남대 명예교수인 이승진 첼리스트와의 감미로운 협연곡도 감상할 수 있다.

한외중 전주시민오케스트라 단장은 "2021년 창단 이래 직장과 현업 속에서도 부족한 시간을 쪼개 연습하며 열정을 다한 우리 모두에게 진심으로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다"면서 "특히 헌신적으로 지도해 주신 김대현 지휘자와 각 파트 지도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모두가 함께 하는 멋진 시간을 위해 무대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뜨거운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면서 "이번 공연이 위로와 희망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자, 음악으로 모두 하나가 되는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전석 초대로 진행되며, 예매 등 관람 관련 정보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아침밥 먹기 캠페인'에 참여한 전주시설공단 임직원들

아침밥 먹기 캠페인 동참

전주시설공단, 쌀 소비 촉진 위해 직원들에게 아침식사 전달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과 지역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밥 먹기 캠페인'에 동참했다.

공단은 25일 화산체육관 앞에서 직원들에게 쌀로 만든 '밥버거'와 식혜를 전달하고, 쌀 소비 촉진 운동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전달된 아침밥 250인분은 전북농협에서 지원했다.

전주시설공단 노조와 한국노총 전주시지역본부 관계자들도 이날 행사에 참여해 뜻을 모았다.

이연상 이사장은 "쌀 소비 문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민들에게 힘이 되고, 직원들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침 식사는 혈당 유지와 과식 방지, 체중 조절 등 신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업무 능력 및 학습 능력, 기억력, 집중력 향상 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나 국내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가구 부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8년 61.0kg에서 2023년 56.4kg로 줄었다.

/김옥기 기자

허전 제8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임명

지역 ICT 산업과 영화·영상, 콘텐츠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갈 허전 제8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 임명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5일 전주시장실에서 허전 제8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허전 원장은 1965년생으로 지난 1986년 공직에 입문한 후 약 38년간 전북도청 등에서 근무하며 김제시 부시장과 전북도 총무과장, 전북도 환경녹지국장, 익산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허 전임 원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이에 앞서 시는 공개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와 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왔으며, 허 전임 원장이 직무 수행 능력과 기관장으로서의 역량 및 리더십을 인정받아 최종 임명됐다.

허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그간 체득한 직무능력과 경험, 혁신적 마인드를 토대로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을 펼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ICT, 영화·영상 등 첨단산업 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옥기 기자



지역 ICT 산업과 영화·영상, 콘텐츠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갈 허전 제8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 임명됐다.

전주완산소방서, 겨울철 전기화재 예방 주의 당부

전선 · 플러그 상태 확인 · 외출 시 콘센트 뽑기 등 강조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경수)는 25일 겨울철 화재 안전을 위해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에는 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 등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면서 과열이나 과부하로 인한 부주의로 전기화재 발생 위험이 커진다. 이에 전주완산소방서는 시민들에게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내용은 △전기제품 사용 전 전선이나 플러그 상태 확인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금지 △뜨거운 손으로

콘센트 만지지 않기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 전원 차단 및 플러그 뽑기 △인증된 안전한 제품 사용 및 과열차단장치 여부 확인 등이다.

또한, 가정내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박경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에는 작은 부주의로도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모든 시민들이 전기기구 사용시 각별히 유의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 저해사범 동절기 특별단속

군산해양경찰서가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동절기 기상악화 등으로 해상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추진하게 됐다.

사고위험 요소 제거를 중점으로 선박의 불법 증·개축, 과적·과속, 무면허운행, 음주운행, 불법조업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관내 해상공사 해역을 중심으로 형사기동정을 투입해 전담반(형사2계)과 주요 항·포구 등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입체적 단속에도 나선다. /뉴시스



전주 인후3동 자생단체연합, 사랑의 김장 나눔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주민센터(동장 국승기)는 지난 21일, 22일에 걸쳐 전주시평생학습관 앞마당에서 홀로 어르신 등 취약계층 100세대에 직접 김치를 담가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김장으로 하나 되는 인후3동'이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자치위원회(회장 정립)가 주최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김인옥),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지선), 통우회(회장 윤순돌), 바르게살기위원회(회

장 유명숙), 방위협의회(회장 김진오) 등 6개 자생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대신교회, 동인교회, 노송신협 등 다양한 후원사가 따뜻한 마음을 함께해 의미가 더욱 크다.

행사에 참여한 인후3동 정립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인후3동 6개 사회단체가 화합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정성껏 준비한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